



특성화 70년 글로벌 100년

우송정보대학 혁신지원사업단

**NEWS LETTER**

## AI 튜터 활용 수기 공모전 성료



2025학년도 2학기 동안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AI 튜터를 활용한 학습 과정, 활용 방법, 학습 변화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실제 경험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제출된 작품은 ▲AI 튜터 활용 목적의 명확성 ▲학습 과정에서의 구체적 활용 사례 ▲학습 효과 및 변화 ▲수기의 진정성과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으며, 그 결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윤여림(간호학과, 3학년) 학생은 "AI 튜터를 통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정리하면서 학습 부담은 줄고 자신감은 커졌다"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즐겁고 효율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AI 튜터가 실제 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와 자기주도학습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학습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송정보대학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사례를 교내 학습 자료로 공유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개선 활동과 연계해 AI 튜터 활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 K-푸드조리과 학생들, 각종 요리대회서 연이은 수상!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의 조리 및 제과 기능 향상과 식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기능경기대회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소상공인 및 조리전문가와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며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우송정보대학 K-푸드조리과 학생들은 3코스 라이브 요리경연대회와 외식창업특화 라이브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전원 금상과 한식진흥원 이사장상과 협회장상 등을 수상하였다. 또, 지난 11월 1일(토) 개최된 제2회 브랜드 챔피언십 '뉴원동뉴들' 요리경연대회에서 K-푸드조리과 정\*주, 전\*현 학생이 3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두 학생은 한식적인 식재료인 닭고기와 들깨를 이용한 라비올리 요리를 선보여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K-푸드조리과는 타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과정(블럭제 실습)과 미슐랭 스타셰프 및 대한민국 명장, 세계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출신 강사의 팀티칭 교육을 통해 실력을 갖출 수 있었다. 또, 우송정보대학 혁신지원사업단의 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전폭적 지원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대회를 준비 할 수 있었다.



## ESG 교육 경영 실천

협약체결전 대전권 4개 전문대학의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던 ESG성과를 발표하고,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ESG 교육경영 공동 실천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네 개의 대학은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한 ESG 실천을 위해 11월 20일에 대동천 일대에서 '대학연합 그린로드 플로깅'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송정보대학 민상기 혁신지원사업단장은 "대전 지역 전문대학 간의 지속적인 교류로 상생을 도모하고 협력을 통해 벤치마킹 및 협업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대식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이 ESG 교육경영의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ESG 서포터즈는 앞으로 나눔실천, 환경보호, 자원순환, 플로깅,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내외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대학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공동 다짐을 선언했다. 발대식을 개최한 우송정보대학 ESG 센터장은 "이제 대학에서 ESG는 필수 과제이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나눔과 지속가능성, 환경보호를 스스로 기획 및 실천 해보고, 미래의 직업과 시민으로서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송정보대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연계 사업과 접목해 책임 있는 ESG 실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송정보대학 주관으로 대동천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대전권 4개 전문대학이 모두 결집하고, 대전시 동구 자양동 행정복지센터도 함께 참여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플로깅은 조깅과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친환경 활동으로 이날 1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은 약 3시간 동안 대동천 주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캔 등을 수거하며 하천 환경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우송정보대학 ESG 서포터즈와 RCY동아리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대학 구성원의 헌혈 참여를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 헌혈행사 일정과 올바른 헌혈을 위한 안내사항 등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게시하였고, '한 번의 헌혈, 누군가의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나눔 실천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우송정보대학 ESG 센터장은 "헌혈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대학 구성원에게 연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한 행사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ESG 실천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우송정보대 글로벌실용예술학부 실용음악 전공, 일본 도쿄 MI 및 녹음실등 해외 연수 성료



보컬, 기타, 작곡 등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실용음악 분야의 최고 대학인 '뮤지션스 인스티튜트 (Musicians Institute, 이하 MI)'의 일본 캠퍼스에서 개최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썸머 샷 (Summer Shot)'에 참가하였다.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함께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하며 전공 별 레슨 및 각기 팀 앙상블 수업 후 파이널 콘서트 무대에 참여했다. 실용음악 전공 재학생 중 2학년 대표 신\*섭 학생은 "일본의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과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일본의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많은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특별히 이번 연수에는 글로벌실용예술학부의 실용음악 전공 교수이자 음악 작곡가 및 프로듀서인 전영진 교수는 일본의 최고 녹음실을 예약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녹음 참여 기회를 주었다. 또한 '오디오엔지니어협회(AES)'의 일본 지부가 있는 '음향예술전문학교 (音響芸術専門学校)'에 방문하여 일본 최고 음향교육의 산실에서 현지의 프로페셔널 뮤지션을 초빙한 녹음 세션에도 참가하고, 녹음 담당 '쿠스모토 다카후미 (楠元 剛史)' 교수가 인도하는 실제 레코딩 진행 현장도 체험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일본 최고의 프로페셔널 레코딩 스튜디오인 '온쿄하우스 (音響HAUS)'에서 있었던 그랜드 피아노 녹음 세션에도 참관하면서, 일본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자주 찾는 스튜디오의 최고급 기자재와 전문 연주자의 피아노 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해당 세션의 음향 총괄 담당인 '다카무라 마사키 (高村 政貴)' 엔지니어와의 대담을 통해 기자재의 사용과 녹음 방식에 관한 지식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 우송정보대 글로벌실용예술학부 실용댄스 전공, 글로벌 무대 진출 위한 현장 중심의 해외 연수 성료



일본을 대표하는 댄스 경연대회인 'Osaka Get Down'과 'Battle Afterschool'에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며 실전 중심의 댄스실기를 경험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총 10명의 재학생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단순한 참관이 아닌, 현지 무대에 직접 오르고 경쟁하며, 세계 댄서들과 교류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현장이었다. 일본 오사카 대표 댄스워크숍인 'KECELACELA HOUSE DANCE' 워크숍을 비롯해, 일본 내 권위 있는 댄스 스튜디오인 Studio Alleyoop, SUNNYHOOD, Dancestudio ash에서의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되어, 학생들은 글로벌 안무 트렌드와 테크닉을 직접 익힐 수 있었다. 또한 오사카 시내 곳곳에서는 즉흥적인 버스킹 공연과 영상 퍼포먼스 촬영도 진행되었으며, 현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단순한 실기수업을 넘어선 실질적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실용댄스 전공 1학년 대표 심\*진 학생은 "이번 해외 연수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직접 수업을 듣고, 현지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Osaka Get Down'과 'Battle Afterschool' 등 이러한 경연대회를 참여하고 수업을 현지에서 받으며 각 전공 장르 및 프리스타일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고 전했다. 글로벌실용예술학부 김혜지 학부장은 "이번 댄스전공 체험 일본연수는 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에게 인정받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큰 자신감이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우송정보대학 유아교육과, 산학협의체 간담회 개최



대전지역 유치원 관계자 7명이 참석하여 학교 현장실습 운영 방향과 대학-유치원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예비유아교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의견들이 공유되었다. 이날 산학협의체 간담회는 대학과 유치원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교육과정 개선 및 지역사회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실제 현장과 연계된 교육 경험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경아 유아교육과 학과장은 “우송정보대학 유아교육과는 현장 역량을 갖춘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 지역 유치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산학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우송정보대학 Weatherford College, 국제 교류 및 협력 체결

이번 협정은 양 대학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연구,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협정 체결식은 우송정보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우송정보대학에서는 손동현 총장과 글로벌협력센터장 이인환 교수, 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심재연 교수, 글로벌실용예술학부 학부장 김혜지 교수, 학부 전영진 교수,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 James Lidonnice 교수와 Weatherford College에서는 토드 알렌 파머(Dr. Tod Allen Farmer) 총장을 비롯한 듀안 드렛 학장(Duane Durrett, 공연예술학부 학장), 송혜영 피아노 스터디 학과장, 프레드릭 샌더스(Fredrick Sanders) 재즈 스터디 학과장을 비롯한 Ms. Lela Morris, Ms. Mary Beth Denni 이사진들이 참석하였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공동 학술 연구 및 마스터클래스 개최 ▲교수 교류 프로그램 ▲온라인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우송정보대학의 글로벌실용예술학부와의 예술 교류를 통해 양 대학 학생들의 공연 교류, 마스터클래스 온라인 세션,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 긴밀한 파트너쉽을 갖기로 했다.



## 우송정보대학 자율전공학부 스포츠운동재활 전공 국가공인 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 최종 합격



우송정보대학(총장 손동현)은 자율전공학부 스포츠운동재활과 재학생들이 최근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증 시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알려왔다. 25학번 9명의 학생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생활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또한, 국민 교육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증인 스포츠재활처방 1급, 운동처방사 1급 자격시험에서도 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송정보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매년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차원에서 교육 및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서 학생은 합기도 지도자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으로 대학 입학 후 대전 시 대표로 발탁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생으로 향후 도장 운영은 물론 후학 양성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학생이다. 또한 이\*호 학생은 "입학 후 교수님들께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를 배우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재활운동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율전공학부 스포츠운동재활과는 스포츠운동재활전공 이재학 교수와 스포츠지도자전공 박상균 교수의 지도 아래 ▲스포츠 선수지도 ▲근골격계 운동재활 ▲수중재활 ▲기능성 트레이닝 ▲스포츠테이핑 ▲태권도, 주짓수, 유도, 합기도 등 실기 중심의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활스포츠지도사뿐 아니라 노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NSCA(미국체력관리학회)의 스포츠영양코치, 웨이트 트레이닝 코치, 선수트레이너(AT) 등의 자격도 함께 취득하고 있으며, 현장 실무에 강한 운동재활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 우송정보대 만화웹툰과, 대동 하늘공원을 만화웹툰 벽화로 벽신



우송정보대학(총장 손동현) 만화웹툰과 학생들이 대동 하늘공원의 회색 철제 가림막을 상상력이 가득한 웹툰 벽화로 탈바꿈시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벽화거리 재단장 사업을 주도한 우송정보대학 만화웹툰과 정성우 교수는 "처음에는 벽화 경험도 없고 요철이 많은 철제 가림막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당황스러웠다"면서도, "오히려 이 점을 활용해 전혀 새로운 벽화를 전개해보자"는 생각으로 자체 벽화 재단장 공모전을 실시하여 재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벽화사업에 접목시켰다. 이 행사에 참여한 만화웹툰과 재학생들은 참가학생 전원이 2025학년도 신설된 신입생들인데 만화웹툰과는 현역 작가 중심의 교수진이 1:1 전담 마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문학사를 넘어 우송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4년제 학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작가 양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 우송정보대 간호학과 한국병원 최윤정간호본부장 초청 특강 성료

우송정보대학(총장 손동현) 간호학과는 2025년 10월 28일 보건과학관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체 초청 특강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특강에는 한국병원 최윤정 간호본부장이 초청되어, 한국병원의 역사와 다양한 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및 병원 생활에 원활히 적응하기 위한 방법과 자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면접 요령도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우송정보대학 이윤희 간호학과장은 이번 산업체 초청 특강을 통해 4학년 학생들이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간호 인재상을 이해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습득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우송정보대학 간호학과는 2010년 신설 이래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실무에 강한 글로벌 전문 간호인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신식 실습 교육, 남학생 특성화, 수도권 및 대전의 대형병원 취업, 편입, 해외간호사 면허취득 등 꾸준한 발전을 하고 있다.



##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예술학부 “제 27회 창작작품 경진대회” 와 “제 13회 SIAT” 성황리에 개최!

우송정보대학(총장 손동현)은 글로벌 실용예술학부에서 지난 12월 3일 “제 27회 창작 작품 경연대회”와 “제 13회 SIAT(Sol International Art Team Project)”을 우송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제 27회 창작 작품 경연대회는 우송정보대학 글로벌 실용예술학부에서 2년동안 실기를 연마하고 창작 작품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발표하는 공연이다. 각 분야는 실용댄스, 실용음악, K-pop 부문으로 나누어져, 실용댄스 전공은 댄스 음악을 직접 비트 메이킹하고 미디로 창작하여 댄스와 함께 발표했으며, 실용음악 부문에서는 작곡, 편곡, 작사, 녹음의 이르기까지 음원이 발매되는 모든 과정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 발표, K-Pop 전공은 직접 작품의 안무를 창작하여 발표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글로벌 실용예술학부 학생들이 2년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창작 경진대회인 만큼 수준 높은 작품들이 총 39팀으로 출전하였다. 시상도 베스트 작곡가(Best Composer), 베스트 작사가(Best Lyricist)를 비롯하여 베스트 안무(Best Choreo), 베스트 전공 협업(Best Collaboration) 등의 부문으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시상 부문도 다양하게 구축하였다. SIAT은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예술학부에서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재학생 팀프로젝트 경진대회로 실용음악은 커버곡을 힙합, R&B, 락,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로 편곡하여 선보이며, 실용댄스는 기존의 곡을 편집하여 코레오, 힙합, 왁킹, 락킹, 하우스, 팝핑 등 스트릿 댄스 장르를 선보이며, K-Pop 전공은 K-Pop 음악과 댄스를 본인만의 무대로 특색있게 만들어 경쟁을 하는 팀 프로젝트 경진대회이다.



## 우송정보대 뷰티디자인학부, 국제 연계 프로그램과 해외 대회 참여자 전원 수상! 세계로 뻗어가는 뷰티 교육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학부가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뷰티 전문가 양성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중국, 일본과의 긴밀한 국제 연계 과정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매년 해외 유학 및 자격증 취득 등의 실질적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8회 아시아미용협회 미용경영대회에서는 우송정보대학의 역량이 다시 한번 빛났다. 교내 자체 경진 대회를 통해 선발된 6명의 학생들은 약 한 달여 간의 집중 트레이닝을 거쳐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전원 수상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우수한 미용 인재들이 모여 치열한 경쟁을 벌인 국제 대회로, 특히 국내 2년제 전문대학 중 우송정보대학이 유일하게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업스타일 부문 이\*은 은상, 강\*은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퍼머넌트 웨이브 와인딩 부문에서 안\*원 동상, 박\*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여성 컷트 부문에서는 김\*지, 정\*윤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모든 참가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우송정보대학의 교육적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우송정보대학 뷰티디자인학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역량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